

2018년 8월 30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나스닥, 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트뤼도 총리, “31 일 까지 미국과 캐나다 무역협상 타결 기대”

#### 미 증시 상승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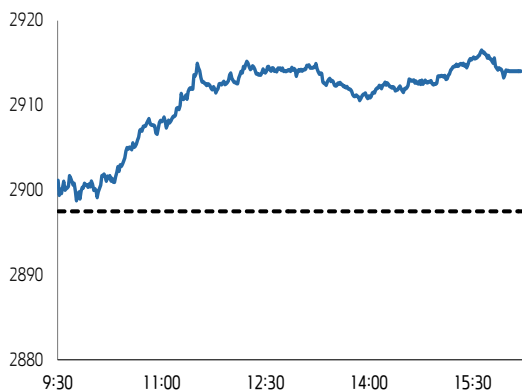
미 증시는 아마존(+3.38%)과 알파벳(+1.51%)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자 기술주가 상승 주도. 더불어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에 따른 상승한 점,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된 점도 우호적인 영향.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S&P500 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다우 +0.23%, 나스닥 +0.99%, S&P500 +0.57%, 러셀 2000 +0.37%)

미 증시가 ①아마존, 알파벳 강세 ②국제유가 상승 ③미국-캐나다 무역협상 기대 ④미국 2 분기 GDP 성장을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상승. 먼저 아마존과 알파벳은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아마존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영업마진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의 1850 달러에서 2500 달러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알파벳에 대해서도 웹서비스 및 광고 분야의 고성장과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 할 것이라며 기존의 1325 달러에서 1515 달러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 이에 힘입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편,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EIA)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지난주 대비 256.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 이는 시장 예상치(68.6 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영향. 더불어 정제유도 예상치(159.2 만 배럴 증가)와 달리 지난주 대비 83.7 만 배럴 감소 했으며 가솔린 또한 예상치(37 만 배럴 증가)와 달리 155.4 만 배럴 감소 한 점도 우호적인 영향. 더불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영향. 이런 공급감소와 수요 증가 이슈에 힘입어 국제유가가 상승한 점도 영향.

그 외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무역 협상에 대해 31 일(금) 전에 타결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 점, 미국의 2 분기 GDP 성장을 수정치가 4.2%로 상향 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였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09.03	+0.26	홍콩항셱	28,416.44	+0.23
KOSDAQ		803.18	+0.63	영국	7,563.21	-0.71
DOW		26,124.57	+0.23	독일	12,561.68	+0.27
NASDAQ		8,109.69	+0.99	프랑스	5,501.33	+0.30
S&P 500		2,914.04	+0.57	스페인	9,569.50	-0.39
상하이종합		2,769.30	-0.31	그리스	742.96	+0.74
일본		22,848.22	+0.15	이탈리아	20,760.07	+0.6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상승

아마존(+3.38%)과 알파벳(+1.51%)은 모건스탠리가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데 힘입어 상승 했다. 두 종목 모두 각각 향후 이익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 점이 목표주가 상향 요인 이었다. 한편, 애플(1.49%)은 9월에 출시되는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엑손모빌(+0.72%), 세브론(+0.30%), 코노코필립스(+2.07%)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대마초 회사인 Tilray(+20.64%)은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5.2%나 급증했다고 발표되자 급등 했다.

딕스 스포팅(-2.17%)은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동일점포 매출이 예상을 하회한 여파로 부진 했다. 익스프레스(-0.00%)는 양호한 실적과 향후 전망 상향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JP모건(-0.33%), BOA(-0.42%), 웰스파고(-0.19%)는 국채금리 하락 여파로 부진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27%	대형 가치주 ETF	+0.22%
에너지섹터 ETF	+0.80%	중형 가치주 ETF	+0.29%
소매업체 ETF	-0.10%	소형 가치주 ETF	+0.14%
금융섹터 ETF	-0.04%	배당주 ETF	+0.16%
기술섹터 ETF	+0.91%	변동성 ETF	+0.03%
소셜 미디어업체 ETF	-0.06%	대형 성장주 ETF	+0.88%
인터넷업체 ETF	+0.76%	중형 성장주 ETF	+0.50%
리츠업체 ETF	-0.15%	소형 성장주 ETF	+0.49%
주택건설업체 ETF	-0.30%	신흥국 고배당 ETF	+0.34%
바이오섹터 ETF	+1.26%	신흥국 저변동성 ETF	+0.13%
헬스케어 ETF	+0.65%	하이일드 ETF	-0.06%
곡물 ETF	+0.53%	물가연동채 ETF	0.00%
반도체 ETF	+0.57%	Long/short ETF	+0.5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53.39	+0.63%	+1.18%	-1.46%
소재	377.29	+0.73%	+2.38%	+1.77%
산업재	650.52	+0.07%	+1.23%	+2.04%
경기소비재	931.43	+1.12%	+2.43%	+5.70%
필수소비재	553.01	+0.08%	-0.55%	+1.51%
헬스케어	1,072.53	+0.66%	+1.45%	+4.24%
금융	473.44	-0.02%	+0.99%	+2.07%
IT	1,329.47	+1.01%	+3.52%	+5.89%
통신	155.24	-0.76%	-0.33%	+3.85%
유틸리티	270.56	+0.59%	+0.16%	+1.76%
부동산	208.76	-0.11%	+1.43%	+1.6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MSCI 한국 지수는 0.06% MSCI 신흥 지수도 0.6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1,153 계약)에 힘입어 0.75pt 상승한 298.7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0.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증시가 아마존과 알파벳,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했다. 특히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발한 투자와 향후 관련해서 이익창출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강세를 보였다. 애플도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했다. 이러한 점은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제유가가 재고 감소에 힘입어 상승한 점도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며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등 증시 주변에 긍정적인 이슈가 즐비하다는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환상적인 관계이며, 북한과 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등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 취소 이후 위축되었던 북미관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인 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 증시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던 종목을 제외하면 대부분 차익실현 매물 출회가 이어지며 부진했던 점은 한국 증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 증시가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이는 등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수 보다는 개별 종목 이슈에 더 민감한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는 잠정치(4.1%)는 물론 예상치(4.0%)를 상회한 4.25 로 발표되었다. 2분기 물가지수는 잠정치와 같은 3.2%로 발표되었다.

미국 7월 잠정주택매매는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전월(107.0) 보다 둔화된 106.2로 발표되었다.

독일 9월 Gfk 소비자 동향은 전월(10.6) 보다 둔화된 10.5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상승

국제유가는 미 에너지 정보청(EIA)의 주간 원유재고 보고서를 통해 원유재고가 지난주 대비 256.6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한 이후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68.6 만 배럴 감소)를 크게 상회하는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우호적인 영향을 줬다. 더불어 정제유도 예상치(159.2 만 배럴 증가)와 달리 지난주 대비 83.7 만 배럴 감소 했으며 가솔린 또한 예상치(37 만 배럴 증가)와 달리 155.4 만 배럴 감소 한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다. 더불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점도 영향을 주며 국제유가(WTI)는 70 달러 가까이 상승 했다.

달러지수는 미국 2 분기 GDP 상향 조정 등 달러 강세 요인이 많았으나,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진 여파로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달러 대비 0.4% 약세를 보인 점은 달러 약세폭을 제한 했다. 반면, 터키 리라화는 달러 대비 3% 가까이 약세를 이어간 점은 부담이다. 캐나다 달러는 미국-캐나다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자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미국 2 분기 GDP 성장률 상향 조정(4.1%→4.2%)에도 불구하고 보험권 혼조 양상을 보였다. 특히 7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52 배) 보다 높은 2.65 배를 기록한 점이 국채금리 상승을 제한 했다.

금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위축되자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의 인프라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부진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93%, 철근도 0.89%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9.51	+1.43	+2.43	Dollar Index	94.532	-0.20	-0.65
브렌트유	77.14	+1.57	+3.16	EUR/USD	1.1708	+0.11	+0.96
금	1,211.50	-0.24	+0.68	USD/JPY	111.68	+0.44	+1.01
은	14,810	-0.60	-0.27	GBP/USD	1.3028	+1.20	+0.91
알루미늄	2,172.00	+1.80	+5.72	USD/CHF	0.9705	-0.59	-1.28
전기동	6,086.00	-0.99	+0.68	AUD/USD	0.7309	-0.40	-0.53
아연	2,512.00	-1.10	+3.54	USD/CAD	1.2910	-0.17	-0.67
옥수수	356.50	+0.07	-2.79	USD/BRL	4.1192	-0.44	+1.88
밀	541.75	+3.54	-0.64	USD/CNH	6.8197	+0.28	-0.41
대두	836.00	+0.33	-3.94	USD/KRW	1110.20	+0.02	-0.78
커피	102.90	-0.15	+1.98	USD/KRW NDF 1M	1110.05	+0.20	-0.61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82	+0.18	+6.33	스페인	1.462	+1.00	+8.40
한국	2.365	+0.80	-3.70	포르투갈	1.893	+2.40	+10.50
일본	0.103	+0.50	+0.40	그리스	4.201	+4.70	+2.70
독일	0.404	+2.40	+6.00	이탈리아	3.121	-6.10	+6.50